

연중 제7주일

제1독서 : 1 시무 26,27-9.
12-13,22-23

제2독서 : 1 고린15, 45-49
복 음 : 루가 6, 27-38

순정이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루가 6, 31).

강론

“성당 먼저? 예수 먼저?”

지정환 신부 / 무지개 가족

30여년 전에 제가 첫본당, 첫사랑인 부안에 부임했을 때는 신자들이 바치는 교무금으로 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워 복사도 보내고, 식복사 없이 1년 동안 중국인이 운영하는 대중 식당에서 식사했습니다. 한끼에 25원만 받고 매일 저를 하늘에서 오는 천사처럼 대했습니다. 고마운 그 외인 중국인! 지금도 부안읍에 가게 되면 본당엔 들리지 않더라도 그 은인에게 가서 인사합니다.

그동안 강산도 3번 변했고 신자들의 경제력뿐 아니라 그들의 인심도 삼천번 이상 좋게 변했기 때문에 주는 분량으로써 금메달을 받을 자격이 분명합니다. 온 세상 각 나라에 가보아도 십이만명도 안되는 이 작은 교구에서 매년 큰 성당 몇 개, 사제관, 수녀원, 회관, 교육관 등을 계속 짓는 교구는 전주교구뿐입니다.

우리 교구 신자들이 신부들을 너무나 잘 모시는 것을 보고,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우리 누나와 형님이 대단히 놀랐습니다. 안심하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막동이 동생신부가 한국에서 굶주림으로 죽진 않았고, 사랑 부족으로 병에 걸리진 않겠다. 고마우신 우리 교구 신자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가 ‘남’이 아닌 것처럼 영신의 아버지도 남이 아니고, 아버지 집이 ‘남’의 집 아닌 만큼 영신의 아버지 집도 남의 집이 아닙니다. 자기 집을 장식하는 사람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아버지를 먹이는 자식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 한다.

남에게 주어라. 같은 가정, 같은 지방, 민족, 종교, 수준, 건강, 사상 아닌 그분에게 주어라. 예수님에게! 정부가 영세민들에게 배급을 주어 굶주린 이들을 먹이는 것이나 병자들을 모시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갱생원으로 보냅니다. 시청 사회파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바쳐야 할 예물은 수익이 높으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까요? 최후의 심판장이 복덕방 아저씨일까요? 은행지점장일까요? 굶주릴 때 우리를 귀찮게 하는 그분일까요?

천팔백여년 전에 성요한 크리소스도모에게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은 먼저 배고픈 이들을 충족히 채워주고 난 다음 그 나머지의 것으로 제단을 장식하십시오. 성당을 장식하는데 협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소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지옥의 꺼지지 않는 불속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당을 장식할 때 고통받는 형제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그는 돌로 된 다른 성당보다 훨씬 가치있는 성전입니다.”

소리

“혼돈과 희망”

한참 둘 다 틀렸다는 양비론(兩非論)이 유행하더니 요즘에는 모두가 틀렸다는 전비론(全非論)이 나돌 만큼 세상이 뒤죽박죽이다.

총선을 맞는 정치판만이 아니다. 국립수사연구기관의 간부가 뇌물을 받았대서 구속되던 날 미국의 5인조 팝그룹 공연장에서는 일대 난동이 벌어져 여중고생 극성팬 수십 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날마다 터지는 해피망측한 사건으로 정신이 어지러울 때 전해진 군혈기 추락사고와 순직장병들의 뒷얘기는 그러나 이 혼돈 가운데도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사고로 숨진 이모 장군은 청렴강직한 ‘참군인’이었다고 한다. 덕장으로 알려졌던 고인은 요직에 있을 때 한 부하가 자신 몰래 집으로 찾아와 봉투를 놓고 가도록 했다 하여 노모에게 심한 역정을 내어 노모가 자살 소동을 벌일 만큼 깨끗한 무인이었다는 것이다.

함께 숨진 5명의 부하 장병들도 헬기가 추락하는 위기의 순간 자신들의 안전띠를 풀어제치고 상관을 감싸 안은 채 보호하다가 순직했으며 특히 전속부관 서모 중위는 추락 현장에서 상관의 손을 꼭 잡은 자세로 발견됐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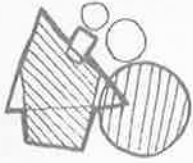
이 얼마나 아름다운 전우애요 이웃 사랑인가.

모두가 서로를 못 미더워하는 요즘 세상에 이처럼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인가.

이처럼 충직하고 남을 자신보다 더 아끼는 사람들이 이 들뿐이 아니라 믿으며 요즘의 전비론에 고개를 힘껏 좌우로 흔들어본다. **신**

순정이 산책





“사랑의 향기를 찾아서”

성언복지원(양로원)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1고린13, 1).
유구한 인류의 역사 이래 요즘처럼 사랑타령이 난무한 적도 드물다.

성서에 근거한 참사랑의 나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지상의 명령이며 죽기까지 베풀어야 할 우리의 과제임을 오늘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하느님 자신이면서 성부의 아들로 태어나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며 사랑이 무엇인가 온몸으로 보여주신 그분의 모범을 따라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참사랑의 실천이 무엇인가 몸소 실천하는 곳이 있어 소개한다.

꼬불꼬불 골목길을 돌아 바닷바람을 맞으며 들어선 곳은 성언(聖言)복지원.

일가 친척이 거의 없거나 길거리에 쓰러져 버려진, 오갈 데 없는 할머니들을 수용해서 마치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이다. 이곳에 복지원이 들어선 것은 1978년의 일로 1964년 윤락여성을 지도하기 위해 착한목자수녀회에서 운영하던 기술학교 자리에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에서 복지원 설립인가를 내고 80년도에 할머니 30분을 받으면서부터였다. 65세 이상의 할머니들만 모여 사는 이곳은 현재 33분이 함께 생활한다. 이 중 최고령자는 104세의 김선녀(요안나) 할머니로 아직 정정하다. 33분 중 수녀님의 예비자 교리 후 영세로 세 분만 빼고는 모두 신자인 이분들은 매주 육봉 성당 신부님이 오셔서 미사를 지내주신다. 몸이 불편해서 직접 활동은 못하시지만 육봉 성당 레지오팀의 협조단원으로 기도, 묵상 등 수녀님들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며 간단한 청소, 빨래, 산책 등으로 소일하며 사신다. 이곳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분은 조소피아 수녀님으로 3대 원장이다. 그외에도 총무, 간호사, 당가, 생활지도, 기사수녀 등 모두 여섯 분의 수녀님들이 정성으로 봉사하신다.

성언(聖言)복지원, 글자 그대로 거룩한 말씀으로 소외된 노인들의 여생을 편안히 모시기 위해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막을 잘 준비시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해드리려고 노심초사하시는 수녀님들께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국고보조금 70%, 회사금 30% 정도로 운영되는 이곳의 가장 큰 어려움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성격이나 모든 면이 ‘정상적이지 못한’ 노인들을 ‘정상적인 상태’로 선도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미 오랜 세월을 어렵게 지냈던 이들에게 남은 것은 배고픔과 이웃에 대한 원망과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심뿐, 순수함이 결여된 이들에게 아



무리 좋은 방법의 선도라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다고 한다. 홀로 어렵게 살다가 공동체 생활에 익숙치 못한 건 당연한 현상이고 사회에 대한 반감과 비뚤어진 시각 등이 신앙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이들을 설득하고 교리를 가르쳐 영세시키는 노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한다. 이웃에 육봉 성당이 있어 교우들이 가끔 찾아와 도와주며 장례시에는 성당 애령회에서 염, 장례예절 등 전적으로 봉사해주는 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일 중의 하나이다.

이들과 함께하며 살아온 원장수녀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신앙의 본질인 신·망·애 삼덕 중 애덕이 가장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사랑이 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면 부정과 악을 초래하게 됩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남을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함입니다” 라며 조용히 웃으시는 표정에서 스스로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할머니들에게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시려 애쓰는 천사의 모습을 본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인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느님의 권리이다. 다만 우리는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스스로 인간 노릇을 못하는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 인간도리의 결핍으로 빚어진 사회의 병리현상으로 인해 생겨난 어려운 이웃을 주님 품으로 끌어들이고 온전히 주님께 봉헌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성언복지원의 식구들. 오늘날 그릇된 사랑 타령에 멍든 사회에 한 송이 백합과도 같은 이분들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가길 빌어본다.

양재·한복·흠패션
노라노학원
수시모집, 원장직접 개인지도
원장 **김형문** (대건안드레아)
동부시정약·민정당시약
☎ 86-2715
* 냉난방 완비

대장·항문병(치질) 전문치료
서울의원
-레이저에 의한 무통 수술로써
수술 후 정상 활동 가능-
원장 **이상재**(베네딕도)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상당전화 75-0550

웨딩드레스 전문점
신부의 집
전주점 관동로 88-6951
군산점 평화동 42-2552
최영자(헬레나)

결혼·약혼·파티복·남복
고려주단 한복사롱
전광원(마리코)
김소피아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1가 120-1
(신촌 예식장 골목)
☎ 88-1902

5분 교리

“하느님은 정말 계신가?”

“하느님이 나에게 밥을 줘요, 옷을 줘요? 내 눈으로 못 보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받는 첫번째 질문이요 도전이다. 그렇다. 하느님이 내게 직접 무엇을 주시는 일은 없다. 그렇다면 내게 필요한 것을 주고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이가 있다면 그를 하느님으로 섬길 수 있겠는가? 못 보았기 때문에 못 믿는다면 실제로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대상 중에 하느님으로 섬길만한 존재가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찾아볼 것이다. 아마 생각으로는 5분 이내로, 하느님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면 몇 개월 이내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는 존재는 다 변하고 사라지기 마련인 까닭이다. 때문에 실망하고 슬퍼하면서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을 갈구한다. 예로부터 불로초, 불사조 이야기는 모든 인간의 소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이유가 된다.

한국 신앙의 첫시조인 이벽어른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어보자.
 “아비 없는 자식 뵈나, 양지 없는 음지 있나 / 임금 용안 못 뵈었다, 나라 백성 아니런가 / 천당 지옥 가 보았나, 세상 사람 시비마소 / 있는 천당 모른 선비, 천당 없다 어이아노 / 믿어보고 깨달으면, 영원무궁 영광일세.”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은 높은 학식이 필요없다. ‘아니 땀 굴뚝에 연기날까?’ 누구든지 알아듣는 원인을 찾는 방법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 틀림없이 하느님이 계심을 알 수 있다. 사실 하느님이 안 계시다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고 그 안 계심을 증명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 참고 자료 : 저를 버려주세요 (VHS, 29분)

교 구 소 식

1. 교구 법원 : 2월24일(월) 오전10시 교구청.
2. 재무 평의회 : 2월25일(화) 오전10시 교구청.
3. 공소회장 연수회 : 2월25일(화) - 27일(목) 천호 피정의 집.
4. 고등부 간부 피정(TEC) : 2월27일(목) - 29일(토) 나바위 대건 교육관.
5. 평신도 협의회 제17차 정기 총회 및 연수회 : 2월29일 - 3월1일 천호 피정의 집, 회비 - 20,000원, 대상 - 각 본당 사목회장 · 교구단위 단체장.
6. 그리스도 공동체 수련회(M.B.W.) 기초과정 : 2월25일(화) - 27일(목) 천호 피정의 집, 대상 - 공소회장단, 회비 - 25,000원, 접수 - 사목국(24일까지), 출발 - 25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7. 은혜의 밤 철야기도회 : 2월28일(금) 밤11시 전동 성당.

- **성소모임** 성바로떨수도회 : 3월1일 오후2시 성바로 서원 2층 (0652)252-3398.
 살레시오수녀회 : 3월1일 오후2시 연지동 성당 수녀원 (0681)33-2578.
 사랑의 씨튼수녀회 : 3월1일 오후2시 가톨릭센터 3층 소성당 (0652)212-3233.
 살레시오남자수도회 : 2월29일 15시 - 3월1일 13시 본원 (062)55-0332.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에 애정을

책상이나 의자, 사무용품, 기계, 재료 등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사랑하고 아끼시다. 이것이 곧 절약입니다.

정 연 머리방
 신부화장전문, 특수헤어스타일, 컷트, 파마, 피부미용관리
 효자동 제일여객 앞 골목
 조 정 연(글라라)
 ☎ 223-4701

성모 지압 침술원
 디스크 및 제반 증상 치료를 위한 지압과 침술,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원장 박 종 민(가브리엘)
 전주시 서신동 298-8(서신동 성당 옆) ☎ 77-5997

한아름부엌 완산대리점
 사무용품, 장승가구
 장승백이 에그린아파트 중간
 ☎ 88-7603, 88-9984
 김영춘 · 강희선(벨라렛따)

요심이 (968) 김병모

국립수사연구소
 = 3위위감정 혐의없음
 그럴줄 알았어!

여당유력인사
 = 선거법위반으로 조사중!
 “하지부지 되겠지”

학살히
 = 전라도사람 많이 등용토록 하겠오
 사람웃기네

전라도에
 = 앞으로 많이 투자하겠오 이사람 믿어 주시오
 사람약올리네

◆ 사무실 임대 ◆
 가톨릭센터 2층 219호 6평
 문의 전화 85-0041~3

감사드립니다.
 1월23일에 별세한 저희 모친 김 아네스 치상 때 기도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환(다두)
 박은규(테레사) 올림

신부 부케 전문점
진 선 미 꽃 집
 이 마리아
 범 디도
 ☎ 84-2628

현대 컴퓨터 전북 총판
 (태평양 수영장 1층)
 김 종 희(빈첸시오)
 윤 영 숙(엘리사벳)
 ☎ 74-0089, 0090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노승남

1. 교무금 납부에 좀더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2. 성지가지 회수: 3월1일까지 사무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3. 첫영성체 대상아동 부모모임: 공식미사 후.
 4. 여성연합: 25일 어머니미사 후(울놀이)
 5. 빈첸시오: 29일 오전9시30분
 6. 제대회: 29일 오전10시30분
 7. 금주청소: 동진 1.2반 차주청소: 남노 1.2반
- ☐ 지난주 봉헌금: 788,940원 ☐ 교무금: 811,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병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이삼인

- ※ 각 가정에 있는 성지가지를 사무실에 내 주시기 바랍니다.**
1. 병자불성체: 28일(봉성체를 원하는 가정은 신청바람)
 2. 주일학교 졸업식: 29일 오후4시.
 3. 유아세례: 29일 오후6:30분
 4. 여성분과 및 구역분과 성지순례: 3월2일 오전8:30남양성지
 5. 회합: ①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②M·E모임(공식미사 후) ③ 제대회(27일 오전10시) ④사목회(3월1일 저녁미사 후) ⑤대건회(3월1일 공식미사 후)
- 금주전례: 유두석 독서-김현덕씨 부부 봉헌-하병규씨 부부
차주전례: 유복규 독서-안병주씨 부부 봉헌-김동수씨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607,110원 ☐ 교무금: 964,5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수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동욱

1. 성모회: 공식미사 후 2. 울뜨레아: 27일 저녁
 2.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4. 교무금납부의날: 매월첫주(다음주)
 5. 가정방문: 25일(화)-색장, 원색장 26일(수)-하신 27일(목)-상신 28일(금)오후-원신
 6. 성서읽기: 창세1장~3장 7. 금주청소: 신비로운 장미Pr.
 8. 금주전례해설-송병덕 독서①한동욱 ②주영래 봉헌-안정만, 박순귀씨 부부
차주전례: 해설-유만선 독서①남현준 ②김금자 봉헌-하대중, 이명수씨 부부
 9. 성가대 월례회: 29일 저녁미사 후.
- ☐ 지난주 봉헌금: 275,400원 ☐ 교무금: 62,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석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명웅

- ※ 오늘은 연중제7주일!**
1. 회의: ①반장회-다음주일(3월1일)공식미사 후 ②꾸리아-다음주일(3월1일)오후2시 ③자모회-다음주(3월4일)수요일 오전10시30분 ④사목회-다음주(3월4일)수요일 저녁미사 후.
 2. 알림: ①각 신자 가정에 있는 성지가지를 사무실에 가져오세요 (3월1일-한) ②성서교실수강생모집-성서교실수강생희망하신분은사무실에입학신청서가있으니 사무실에 접수바람(단2월29일까지) ③중고생동계피정-2월25일~2월26일양일간, 장소-서학동성당 학생들의많은참석바라며, 부모님들의협조부탁합니다. ④교무금-전년도미수금환납바라며, 금년도분도정성껏봉헌합니다.
- ☐ 지난주 봉헌금: 650,350원 ☐ 교무금: 403,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정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직환

- ※ 새로오신 박희춘(데레사)수녀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요셉회, 사랑회: 공식미사 후.
 2. 꾸리아: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공동체수련회(현대복음화과정)참석자 25일 9시30분 센터출발.
 4. 교리실 비품 봉헌바랍니다(계시편 참고)
 5. 예비자교리: 3월1일시작(1인1명입교권유)
 6. 여성제3차꾸르실토(20일~23일): 김수덕(요셉피나) 서영연(데레사) 축하합니다.
 7. 용머리가족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반모임 무궁한 발전바랍니다. ※물적영적으로 척벽의 정을 주신 본당 교우여러분 감사합니다(정명희(소피아)수녀)
 8. 청소년: 1구역 1반 2반
- ☐ 지난주 봉헌금: 722,600원 ☐ 교무금: 810,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봉희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삼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이영태

1. 성마리아 꼬미시움: 금일 오후2시.
 2. 교리교사 가정방문(중·고학생): 2월24일~28일. A지역(24,25일), B지역(26,27일), C지역(28일)
 3. 차주모임: ①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②재속글라라형제회(오후1시30분)
 4. 변경된 주소와 전화번호는 교역에 고쳐졌는지 또는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관심올투고 확인을 바랍니다(사무실-평일에)
 5. 작은 성지주일에 나누어드린 성지가지를 사무실로 가져오세요.
* 금주보수비헌금액: 60,000원
* 현재모금총액: 268,998,811원
- ☐ 지난주 봉헌금: 1,697,970원 ☐ 교무금: 930,00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재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이완규

1. 성서교실 신청: 26일까지(금요일반)성서40,000원 통신20,000원.
2. 평화 M.E가족 나눔모임: 24일 후8시 장소-사제관.
3. 전일신자및 쉬는교우 방문: 25일-5구역 27일-6구역 28일-7,8구역 4. 신학생 귀교: 27일 수고 하였습니다.
5. 중·고생 동계피정: 24일~26일 장소-나바위 출발-전9시.
6. 중·고생 회장단 연수: 27일~29일 심효섭, 임지현, 김복성
7. 공소회장 연수회: 25일-27일 오전10시. 센터집합.
8. 장요셉 수녀 피정: 24일~3월3일, 맑은기도부탁드립니다.
9. 성지가지 회수: 3월1일까지 사무실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10. 축! 회갑: 23일 수12시. 조만석(분도)양생, 건강하세요.
11. 회의: 울뜨레아-공식미사 후 성가대-26일 어머니미사 후 꾸리아-다음주일 후2시30분 * 감사헌금-익명100,0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석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병길

1. 청년회·ME모임: 오늘미사 후.
2. 대건회 치명자사 순례: 오늘 오후1시30분
3. 반모임: 26일(수)오전10시30분-통신APT
4. 축! 꾸르실토 수료자: 이현희(로사)자매님 축하합니다.
5. 성가대 안내: 매주 화요일 오전10시30분 (성가대장-차봉자, 지휘자-유희정, 율젠-이금숙)
6. 성지가지를 다음주일에 가지고 오십시오.
7. 주일학교 안내: 초등부-토요일 오후3시, 중고등부-오후6시.
8. 금주전례: 김용무 독서·봉헌: 정형정·김의식
차주전례: 장병순 독서·봉헌: 윤영심·유승열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치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석희
사목회장 이동섭

1. 예비자모집: 수요일(직장인)오후7시30분 목요일(주부만)오전10시30분 일요일(일반)오전9시30분 2. 모임: 사목회-다음주 금요일, 성모기사회-다음주 토요일, 까리따스-다음주 금요일, 안나요셉회-다음주일12시 ※ 파티마신협 정기총회: 2월25일(화) 13시30분(효자동성당) 3. 모든단체의 소식은 변동이나 특기사항을 매주일까지 단체장이 사무실에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미사안내: 월요일미사(06시, 10시)신설 금주부터 실시 5. 권고사항: 모든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일속하고 거룩한 제사입니다. 참여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경건한마음가짐으로 매미사에 미리나와 준비하는 자세가 더욱중요합니다.
- ☐ 지난주 봉헌금: 1,318,390원 ☐ 교무금: 792,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순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임의도

- ※ 나눔의 주일입니다.**
1. 사목회: 저녁미사 후 2. 요셉회, 반석회: 공식미사 후 3. 반기도회 모임: 28(금)어머니미사 후 4. 유아세례: 29(토)오후2시 5. 파티마신협 정기총회: 25(화)오후1시30분효자성당 6. 축! 환영: 박(보나)옥희 수녀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 꾸르실토수강: 홍홍순(데레사), 이선란(안나)자매님 8. 중·고학생 피정: 25(수)~26(수) 참가비: 2,000원 접수: 25(화)저녁6시부터 9. 신입생 환영회: 3월1일(일)9시미사 후 대상: 중·고 신입생 10. 중·고학생교리: 3월8(일)학생미사 후 지난주 신실금: 1,170,000원 금주전례: 해설-김낙환 독서①임정준 ②임효정 기도①이홍재 ②유홍순 차주전례: 해설-김홍두 독서①김형철 ②임양원 기도①김준태 ②양윤옥
- ☐ 지난주 봉헌금: 1,277,950원 ☐ 교무금: 1,280,000원